

## 한센인의 ‘요양소 가는 길’ 연구 -장편소설 『낙화유수』와 재일교포 환우수기 『형극의 반생기』를 중심으로-

오현석  
(부산대)

1. 들어가며
2. 한센인을 둘러싼 굴레와 ‘요양소 가는 길’
3. ‘요양소 가는 길’에서 마주친 자기 인식
4. 나오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센인이 한센병 요양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와 타자화 문제를 다루었다. ‘요양소 가는 길’은 단순히 한센인들이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일반인으로 살아오다가 한센병을 진단받고 사회적 타자가 된 자신에게 적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편소설 『낙화유수』는 주인공 김백수가 요양소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서술하고 있다. 재일한센인 川野順의 『형극의 반생기』는 작가가 일본에서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조선인이자 한센인으로 살아온 이중

의 마이너리티 속에서 겪은 차별과 배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그들은 요양소 가는 길 위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깨달음을 얻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제어|** 한센인, 한센병, 한센인 문학, 한센병 요양소, 재일 한센인

## 1. 들어가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쫓겨가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한하운, 「전라도 길-소록도로 가는 길에」<sup>1)</sup> 중 일부

한하운의 시에서처럼 많은 한센인들이 숨 막히는 더위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붉은 황톳길”과 같은 고행을 선택하고 ‘요양소 가는 길’ 위에 섰다. 이 길의 여정에서 그들은 사람들의 괘시와 병세의 악화를 견디며 한발 한발 그곳으로 몸을 옮겼다. 그 길에서 신체 일부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끝없이 걸어갔다. 한하운이 시의 부제로 삼은 ‘소록도로 가는 길’은 이처럼 한센인들에게 고통과 상실, 처절한 자기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상처이지

1) 한하운(2010). (재)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한하운 전집, 문학과 지성사, 67쪽.

만 또 자신과 주변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기도 했다. 소록도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반도 각지와 일본의 한센병 요양소와 병원 등 한센인들이 거처할 곳을 찾아가는 길은 어디든 멀고도 험하고, 걸어도 걸어도 줄어들지 않는 상실의 여정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세계 밖의 타자인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상실감의 공백을 본능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고통을 인내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 끝에 있을 최종 목적지인 요양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일제강점기 한센병 요양소는 한센인들의 육체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서로 동일한 상실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머물러 있어서 서로 개체적 특성을 구분하거나 분류할 필요 없는 장소성<sup>2)</sup>을 지닌 공간이었다. 또 그곳은 한센인들에게 타자로서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요양소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한센인들의 '물리적' 거처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실제 1920년대 후반 전국한센병 환자 단체에서 요양소, 병원 등 한센병 관련 시설에 자진 입소를 요구<sup>3)</sup>하기도 했다. 당시 한센인들은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요양소행을 택했다. 한센인들은 전통적인 민간요법 또는 속설로는 한센병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근대 의학에 희망을 걸었다.

일제강점기 초기 한센병 관리와 치료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도했다. 근대 의학 기술을 지닌 선교사들이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치료에 나서면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서구에서 발명한 한센병 치료제와 치료 방법으로 실제 한센병이 치유되기도 했기 때문에 한센인들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시설에 입소를 희망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각 시설과 단체의 여건상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다.

2) 에드워드 켈프(2017).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86~88쪽. 공동체와 장소는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한센병 요양소 역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서 사회적 공간임과 동시에 고향을 떠난 한센인 개개인이 선택한 정착지이기도 하다.

3)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돌베개, 109~112쪽.

조선총독부는 1916년 소록도 자혜의원을 설립한 후 1934년 소록도 갱생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1935년 <조선나예방령>이 공포되기까지 소록도를 중심으로 조선의 한센인 환자 관리 체계를 재편<sup>4)</sup>하고자 했다. 1920년대 총독부에서 파악했던 조선의 한센병 환자는 약 4,300명 정도이며, 추정 감염자는 약 1만여 명<sup>5)</sup>에 이르렀다. 문제는 조선총독부의 격리시설(소록도 갱생원)과 민간 치료기관의 수용인원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 부랑(浮浪) 환자가 발생하여 192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한센병 확산은 국가적 수치이자 일제의 위세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판단<sup>6)</sup>하여 소록도 격리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또 서양인 병원 운영에 대한 일제의 탄압 속에 점차 소록도 갱생원이 선교사들의 한센병 시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록도 갱생원의 강제 격리, 단종, 낙태 등 인권 유린이 알려지면서 소록도는 한센인들에게 가기 싫지만 가야만 거부할 수 없는 양면성을 지닌 공간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한센병 환자들의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 유랑의 목적지인 요양소는 한센인들이 물리적 유랑을 거쳐 정신적 부유(浮遊)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공간이다. 한센인들은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경험하고 더 이상 기존 사회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가족-사회-나시설로 긴 여정”<sup>7)</sup>을 결심하게 된다. 즉, 타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가족, 지인을 볼 모로 사회의 배타적 기제가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한센인의 유랑은 그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요양소로 가는 길에서 타자화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한센인의 자기 인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한센인의 이주와 정착, 거주 불안에 대한 문제는 요양소로 가는 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정근식(2002).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 22~23쪽.

5) 「사천여 나환자 중 영남이 과반수, 동아일보, 1926.1.25.

6) 김재형. 앞의 책, 39쪽.

7) 김재형(2021).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최해별 외 8인, 질병 관리의 사회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15쪽.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양소 가는 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센인의 고향상실에 기인한다. 즉, 한센인의 거주와 정착 불안,<sup>8)</sup> 자의-타의에 의한 탈향-실향<sup>9)</sup>으로 이어지는 공간 상실이 요양소라는 새로운 장소성의 형성을 촉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요양소 가는 길’이 단순히 한센인이 집을 떠나 요양소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한센인의 장소 상실과 장소 형성의 길항작용 가운데 놓여 있는 내적 심리 변화를 도모해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징표임을 밝히고자 한다. 즉,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과 관련된 공간과 장소성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센인의 생애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내 한센병 환자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라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지닌 두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이들 문제를 살펴보겠다. 2장과 3장에서는 한센병 서사문학에 드러나는 ‘요양소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그 여정에 녹아있는 한센인의 타자화된 모습과 사회에 반응하는 한센인의 내적 심리를 추적하고자 한다.

## 2. 한센인을 둘러싼 굴레와 ‘요양소 가는 길’

1917년 73명을 수용했던 소록도 자혜의원은 점차 수용 환자가 증가하여 1940년에는 공식 통계로 6,136명에 달했다.<sup>10)</sup> 일제는 한센인 격리, 군수 물자 생산 및 공급, 의학 등 다양한 목적하에 소록도 시설 확장을 통해 수용인원을 증가시키고, 1935년 <조선나예방령>을 공포함으로써 식민지 조선 한센인의 강제 격리와 통제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즉, 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탄압이 더욱 가혹해질수록 그들은 소록도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요양소 가는

8)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9, 101~134쪽.

9) 오현석(2021). 한센인 잡지 『복지』를 통해 본 한센인의 고향상실: 탈향, 귀향, 실향의 서사, <한국민족문화> 80, 207~237쪽.

10) 소록도병원(1996). 연도별 환자추이, 소록도 80년사, 소록도병원, 319쪽.

길'은 자율을 가장한 강제와 압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0~1940년대 한센인, 한센병과 관련된 텍스트는 '요양소 가는 길'의 여정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낙화유수』<sup>11)</sup>와 『형극의 반생기』<sup>12)</sup>를 들 수 있다. 『낙화유수』는 만주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만주 봉천으로 유학 간 주인공 김백수가 그곳에서 한센병을 진단받고 조선으로 돌아와 요양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여로형 소설이다. 이 소설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서 한센인이 쓴 최초의 한센병 장편소설로서 1930년대 한반도 한센인의 삶과 당대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극의 반생기』의 저자 川野順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10대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 한센인이다. 그는 1971년 일본어로 먼저 이 책을 발간한 후 1975년 한국에서 번역본을 출간했다. 이 재일교포 환우수기는 저자가 일본에서 한센병을 진단받고 일본의 여러 요양소에서 살아온 생애사이자 생활사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자인 川野順은 요양소 투병 중에 시력을 잃고 감각이 둔해진 손 때문에 점자를 더듬어 가며<sup>13)</sup> 이 수기를 집필했다고 한다.

이 두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한센병 환자들이 요양소를 찾아가는 목적, 방식, 인식 등 한센인 유랑의 다양한 결을 보여준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국가의 강제적인 힘을 작동시켜 한센인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1935년 <조선나예방령>이 공포되었고, 일본에서는 1931년 <나예방법>, 1940년 <국민우생법>이 등장하면서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 단종, 불치(不治)의 우생학적 낙인”<sup>14)</sup>이 제도

11) 무명생(1953). 낙화유수, 정음사. 이 소설에 대한 분석은 정근식과 한순미의 연구를 참고할 것. 정근식(2004).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심승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3, 325~353쪽.; 한순미(2012). 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승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 <인문과학연구> 34, 471~498쪽.

12) 川野順(1975). 신정하 옮김,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이 책은 '재일교포 환우수기'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책이다. 신정하는 한센병 잡지인 월간 『새빛』의 편집인, 월간 『정착』의 편집장을 맡았던 인물로 잡지 발간 과정에서 川野順과 인연을 맺게 되어 한국에서 『형극의 반생기』를 출판하게 되었다.

13) 川野順. 저자의 변(辯), 위의 책, 4쪽.

14) 이지형(2019). 과잉과 결핍의 신체, 보고서, 59쪽.

화되었다. 즉, 1930년대를 변곡점으로 일제는 한센병을 매우 강력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센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동안 한센병이 발병하면 소속된 사회 내의 격리, 가출, 요양소 입소 등 여러 방식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요양소로 가는 길' 하나만 한센인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우생학적 차원에서 '불치의 전염병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일반인들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한센인에 대한 낙인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임을 믿게 되었다. 결국 한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탈향, 유랑<sup>15)</sup>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낙화유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33년부터 월간 『신동아』에 연재되었던 「혈루록」이라는 작품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낸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이 연재된 시기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한센병 정책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특히 1930년대 초까지 선교사 주도의 한센병 관련 시설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조선의 한센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선총독부에서 한센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등의 내용에 주목할만하다. 또한 이 소설은 1930년대 초 한반도 한센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이탈하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주인공인 '김백수'가 한센병 진단을 받은 후 경성과 대전을 거쳐 한반도 남쪽 요양소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당시 한센인들이 겪었던 보편적 장소 상실과 유랑, 이주의 고통이 잘 드러난다.

공상과 고민을 격근 탓으로 그러케 생각되었는지는 몰나도 나는 「혈루록」 속에 담긴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주인공과 가튼 고통을 늦겼다. 이 작품은 이 작자의 엄숙한 생활기록이요 피지 못할 운명이었다. 생사의 경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 작자의 진실한 양자가 아모런 예술적 분식이 업시 자연스럽게 소묘되어있다. 우리들은 「혈루록」을 읽어내려갈 때 방금 생존해 있는 생생한 인간과 마조 압서 잇는 듯한 감동과 인상을 받는다. 주인공의 운명을 작자와 가티 생각하고 동정의 눈물을 먹음지 안홀 수 업다.<sup>16)</sup>

15) 오현석(2021). 앞의 논문, 214~215쪽.

위의 문예 시평을 쓴 평론가 김우철은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혈루록」을 “엄숙한 생활 기록”으로 “예술적 분식” 없이 “생생한 인간”과 마주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카프의 계급문학에 대한 관심과 리얼리즘적 시각의 평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김우철은 「혈루록」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문학적 수식 없이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보았다.

주인공 김백수는 조선에서 고보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만주로 온 당시 지식인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이 지식인 주인공을 내세운 이유를 당시 심각해지던 한센병의 확산, 소록도의 확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체험기이기도 한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지식인도 한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병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기관이 일제의 주장대로 풍족한 영양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 특히 만주에서 경성, 대전, 남도, 군산 등 한반도 남쪽으로 이어지는 김백수의 여정에 등장한 걸인과 한센인 유랑집단, 임시 정착지 등의 서사는 당시 한반도 대부분의 한센인들이 겪었던 운명이었다. 한센병은 아이러니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병이다.

1930년대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한센병 시설은 일제의 비협조적 태도와 세계대전으로 외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지 못한 한센인들 중 다수가 유랑 걸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 한반도 남부 도시에 국한되었던 부랑, 걸식, 집단 한센인 문제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급속하게 번져나갔다.<sup>16)</sup>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지닌 불안과 동요를 활용하여 소록도에 전국의 한센인들을 강제 수용, 격리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930년대 후반 적정 수용인원이 초과된 소록도 갱생원은 의료, 식량, 주거 환경이 급속하게 나빠졌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위신을 위해 더욱 가혹하게 조선 한센인들의 권리를 착취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낙화유수』의 ‘요양소 가는 길’은 이런 점에서 시대적 당위성을 지닌

16) 김우철(1934.6.13.). 문예시평 7 작가의 체험과 진실,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7) 김재형. 앞의 책, 58~59쪽.

다. 한센인들은 요양소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센인들에게 희생이 강요되었다. 김백수가 고민 없이 유랑의 길을 택한 것은 외부 사회와의 단절 의식이 자연스럽게 작동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형극의 반생기』는 1930~1940년대 일본 열도에서 한센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수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자 川野順이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였지만 발병 전, 후 생활을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낙화유수』와 비교하여 일본에서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 가는 길'의 여정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한센인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형극의 반생기』의 저자 川野順<sup>18)</sup>은 1915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나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에 도일(渡日)하여 음악가의 꿈을 이루고자 했으나 생활 여건상 후쿠오카(福岡)-오사카-동경으로 옮겨가며 여러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1937년에 후쿠오카 대학병원에서 한센병을 진단받았다. 2년여 동안 일신을 정리한 후 병원과 요양소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후쿠오카에 위치한 사립 신정심경원(私立身廷深敬園) 분원에 입원한 후 구주(九州)의 국립 국지혜풍원(菊池惠楓園)으로 전원했고 마지막에는 국립 성봉경애원(星塚敬愛園)으로 옮겨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sup>19)</sup>

저자는 보통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사정상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워졌다. 그때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외숙부의 제안으로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존을 위한 노동의 연속이었다. 숙부의 생각은 입을 하나라도 털어 누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저자의 욕망은 숙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본인이 꿈꾸었던 음악 학교에 다니는 것

18) 川野順의 한국 이름은 유순범, 일본 이름은 가와노 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도 저자의 뜻에 따라 한자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는 일본에서 한센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단가회에서 활동하며 『육지 속에 섬』(1957), 『가시나무』(1972), 『한센요양소가인전집』(1987) 등 단가집과 수필집 등의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201393&localCode=jpn>) (검색일: 2023.2.13)

19) 川野順. 저자의 약력, 앞의 책, 173쪽.

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숙부의 삶은 어린 저자가 떠올렸던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숙부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타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약자였다. 저자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숙부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그들은 1930년대 식민지에서 넘어온 힘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가게마다 붙어 있는 <내지인(内地人=日本人)에 한함>이라는 단서<sup>20)</sup> 앞에서 자신이 식민지 치하 조선인임을 처절하게 자각했다. 이처럼 후쿠오카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 경험은 그가 조선인임을 최대한 숨기며 일본 생호라을 하도록 내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오카에서 오사카로 이주한 저자는 이때부터 철저하게 ‘조선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신용도 받지 못하고 천대만 받는 인간”<sup>21)</sup>이라는 경험적 인식을 통해 그는 가능한 말을 줄였다. 오사카에서 공장 생활을 하던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못하고 다시 동경으로 이주하였다. 동경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사카 유리공장에서 일할 때 일본인 동료가 추천해준 ‘상애회관’<sup>22)</sup>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실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왜 그래요.”라고 한국말로 물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흥미없다는 듯 이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좋은 곳은 아주 힘든데요.”라고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묵묵히 서 있는 나를 보더니 그는 계속했다. “아마 오사카의 모자공공장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는 안되지요. …… ‘상애회’라는 것은 조선민족의 황민화의 선봉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B대의사는 국내에서는 평이 나쁜 자가 아닌가’<sup>23)</sup>

20) 川野順. 위의 책, 38쪽.

21) 川野順. 위의 책, 41쪽.

22) 상애회는 1920년 일본 동경에서 조직된 친일 단체. 겉으로는 재일조선인 동포를 돕는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일제의 사주를 받아 일본 내 조선인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단체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대, 폭력, 착취한 기관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27197) (검색일: 2023.2.13)

23) 川野順. 위의 책, 46~47쪽.

낯선 동경에서 조선 동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찾은 상애회였지만 그는 큰 실망을 느꼈다. 상애회 직원은 그의 행색을 보고 '흥미 없는' 존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川野順이 일자리를 구해 일하면서 학교에 다닐 계획이라고 말하자 직원은 직설적으로 현실성 없음을 지적했다. 저자는 그간 일본에서 겪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동포를 만나 해소하고자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졌다. 사실 상애회는 조선인을 활용해 조선인을 통제하고자 했던 일제의 통치 전략이 녹아있는 어용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는 상애회에서 더 이상 '조선', '민족', '동포'를 찾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바로 그곳을 벗어났다. 다행히 거리로 나온 그가 한복 입은 부인에게 "같은 동포를 만난 그리움"<sup>24)</sup>을 표하며 도움을 구해 그 집에 머물게 된다.

상애회와 달리 진정한 '동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차별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화되는 것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었다. 흑자는 이를 두고 회색인으로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적 정체성의 발현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川野順이 한센병을 확진 받기 전이지만 『형극의 반생기』에서 '민족, 조선'이라는 키워드는 한센병 투병 때까지 그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를 흔쾌히 거두어준 부인의 선택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부인의 의식 속에도 그와 같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반일 의식으로 시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있군요." "네 있기는 있는데 호랑이라도 물어가는 편이 좋겠어요. 1년 내내 좋은 곳에만 가 있어요. 우에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 항상 소년감화원(少年感化院)에서 살고 있어요. 주인 아저씨는 오늘 면회가셨어요." 슬픔과 분노가 엇갈린 목소리로 아주머니는

24) 川野順. 위의 책, 47쪽.

말하고 있었다.<sup>25)</sup>

〈당신은 궁성요배(宮城遙拜)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실감적(實感的)으로 아무 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지만 우선 채용(採用)이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을 모시는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감격을 느낀다〉고. 이후 간단한 신체검사가 있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죽죽 써는 기분에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으로 둔갑을 하고는 있지만 말에는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있다.<sup>26)</sup>

위의 인용문은 부인과 저자 모두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년감화원에 수용된 아들을 통해 조선인 자녀들이 일본 사회에 적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저자의 경우에 취업 시험에서 조선인임을 드러낼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결국 저자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진실을 감추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동경으로 이주 후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을 숨겼고 다른 이들과 교류를 가급적 줄였다.

2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나온 『낙화유수』와 『형극의 반생기』에서 한센병을 진단받은 한센인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사회 배경, 정책, 지배계층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낙화유수』는 옆의 함께 있던 걸인 동료가 요양소 행을 촉발한 원인임과 동시에 주인공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거울이 되었다. 또 반대로 주인공이 본인 이외의 한센병과 관련된 세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낙화유수』에서는 본격적으로 ‘요양소로 가는 길’에 접어들기 전에 그 길을 선택한 이유를 함께한 걸인과 그 집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길 위의 동료가 주관적, 객관적 정체성 판단의 징표가 되었다.

『형극의 반생기』에서는 저자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조선인-한센인이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혼란을 겪으며 요양소행을 택하게 된 과정이 기술

25) 川野順. 위의 책, 49쪽.

26) 川野順. 위의 책, 52쪽.

되어 있다. 또 인간의 정체성은 쉽게 변할 수 없으므로 요양소에서도 그러한 이중성이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도일(渡日) 이후 일본 본토에서 반복되는 조선인에 대한 은밀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반작용으로 민족과 동포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를 요양소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양소 행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나서야 하는 길이다. 고통과 배제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므로 한센인들의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들의 목적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3. '요양소 가는 길'에서 마주친 자기 인식

3장에서는 『낙화유수』와 『형극의 반생기』에 서술된 '요양소 가는 길'의 서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요양소 가는 길을 단순히 한센병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요양소나 병원으로 가는 물리적 과정이 아니다. 요양소까지 가는 과정은 한센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각하는 자기 인식 확립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 여정 속에서 일반인으로 살아올 때 겪지 못했던 타자로서의 삶을 겪게 된다. 이처럼 한센인들의 머나먼 여정은 단순히 그들이 걸어가는 길 끝에 요양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소로 가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한센인의 자기 인식, 자기 포기, 타자로서의 체험, 배제와 차별의 경험 등 그들의 생애를 둘러싼 한센병 진단 전후의 혼란한 자기 찾기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사실 한센인 서사에 완치 후 퇴원이라는 희망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질병과는 달리 한센병은 만성질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의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한센병은 다른 급성 질병들과는 달리 시간을 다투며 치료하지 않아도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큰 문제가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환자들은 한센병 진단을 받은 후 민간치료법에 의존하거나 집 안에 머물며 치료를 시도하는 등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센

인들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핵 등 다른 투병기에서 나타나는 완치에 대한 희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병세가 심각해지거나 병흔이 몸의 곳곳에 나타나서 타인에게 병을 숨길 수 없게 되면 요양소나 병원 입소(원)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요양소나 병원의 경우 격리를 원칙으로 언제 퇴소(원)가 가능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는 달리 한센인들은 최대한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의 생애사적 특성이 『낙화유수』와 『형극의 반생기』의 ‘요양소 가는 길’에도 드러난다. 『낙화유수』의 김백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지식인으로 한센병 진단 후 스스로 요양소 행을 택했다. 그런데 그의 여정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된 걸인 한센인이 있다. 이 소설의 특성은 김백수가 걸인을 통해 요양소 가는 길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낙화유수』는 김백수가 한센인이면서 동시에 당대 한센인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서사적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형극의 반생기』는 저자가 직접 쓴 ‘환우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적 서사를 담보하고 있다. 즉, 두 텍스트 모두 한센인의 당대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 『형극의 반생기』는 저자가 조선인이지만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처럼 살아온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일제가 패망하여 귀향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리에서 조국과 민족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반쯤 일본인이 되어진 나는 시대에 순응하여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고, 하라는 대로 인형과도 같이 살아온”<sup>27)</sup> 인생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역전에서 <조선연맹>이라는 완장을 두른 사람을 지나치면서도 “기회주의자, 편승자로 또다시 얼른 변절하는 것”<sup>28)</sup>을 경계하는 마음에 말을 붙이지 않았다. 요양소로 가는 과정 역시 『낙화유수』와는 달리 자신의 일신을 정리하고 스스로 사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이후 국립요양소로 거처를 옮겨 투병 생활을 계속하

27) 川野順. 위의 책, 120쪽.

28) 위의 책, 같은 면.

는 서사로 전개된다. 이처럼 『형극의 반생기』의 저자는 한센병과의 대결과 함께 일제강점기 일본 내 조선인 차별에 대응했던 정체성의 문제를 ‘요양소 가는 길’의 과정에서 극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낙화유수』에서 주인공 김백수의 여정은 한센병 진단 후 만주를 떠나 요양소를 찾아 남도로 내려갔다가 입소를 거절당해 군산으로 간 후 고향까지 이어졌다. 이 여정에서 김백수는 사회적 타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객관화함으로써 한센인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삶으로 인정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김백수의 행적을 따라 ‘요양소 가는 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백수의 고행 시작은 만주 대학병원에서 한센병을 진단받으면서부터이다. 한센병 진단의 영향은 병원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인 지식을 지닌 의료인들조차 그들이 지닌 지성과 인간이 지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객관적 지식을 선택하지 못했다. 20세기 초반까지 한센병 완치를 위한 명확한 방법이나 확실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센병은 두려운 병이었다.

“만주 온지 얼마나 되었소?” “서너달 되었습시다.” “어떤 학교에 무엇을 공부하러 오셨소?” “○○대학 문과를 원합니다만 뜻대로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에서 무엇까지나 공부했오?” “고보(高普)를 맞추었습니다.” …… 의사가 퍽 친절한 태도로 내게 이런 말까지를 물었을 때(낙화유수, 5쪽)<sup>29)</sup>

“거기 가면 병이 낫겠습니까?” …… “그것이 병원이라니보담 나환자격리 수용소니까요. 병이 낫는달 수는 없소.” …… “하여간 저는 인제 그리로 가느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 “그렇지요” 의사의 대답은 어름장처럼 싸늘합니다.(낙화유수, 13쪽)

김백수는 한센병 확진 후 의사의 태도 변화에서 자신이 앞으로 나환자격리수용소까지 가야 할 길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본인 의사는 만주

29) 3장에서 『낙화유수』와 『형극의 반생기』의 인용문은 인용문 끝에 제목, 쪽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출처 표기를 대신함.

에 대학 진학을 위해 왔다는 그에게 친절한 태도로 여러 증상을 꼼꼼하게 살핀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김백수가 더 이상 일말의 희망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발언했다. 김백수의 ‘요양소로 가는 길’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한센병을 확진 받는 순간 확진 받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세계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첫 시간이다.

김백수는 한센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우선 만주에서 경성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걸식하는 한센인을 우연히 만나고 그와 함께 남도에 있는 서양인이 운영하는 한센병 요양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걸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교차시켜보기도 하고 또 거부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순응과 거부 모두 자신이 한센병 환자임을 완벽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된다.

아! 거지는 문둥병자입니다. 얼굴이 무섭습니다. 옷도 더러울뿐 아니라 병상(病牀)이 참혹해서 나는 얼마를 바라보다가 눈을 사르르 감았습니다. ‘내 운명도 머지 않다. 저와 같이 될 것이냐?’ 문득! 이 같은 생각이 날카롭게도 내 머리 속을 꿰뚫습니다. ‘아아 당신이 내 장래를 보여주는 상증물(象徵物)이나 아니오?’(낙화유수, 32쪽)

위의 상황은 타자 혐오에서 자기 인식을 거쳐 자기혐오와 수치심이 작동하는 한센병 환자의 내적 혼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혐오의 감정은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에서 문제가 있는 물질이나 상황이 자신의 체내로 들어오거나 영향을 줄”<sup>30)</sup> 수 있는 상황에 생긴다. 또 “혐오는 우리 인간이 지닌 동물성을 숨기고, 우리 자신의 동물성을 꺼려할 때 현저히 드러나는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sup>31)</sup>임을 고려할 때, 김백수가 걸인의 외모를 보고 느꼈던 무서움, 참혹함, 두려움의 감정은 자신의 처지를 순간 잊고 즉각적인 감각(시각)에 의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혐오 감각의 본능을 제어하는 이성이 발동하자 연이어 자신 역시 걸인이 지니고 있는 혐오의 씨앗을 동일하게

30) 마사 너스바움(2015).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168쪽.

31) 위의 책, 170쪽.

품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상증물”을 통해 씨앗이 필연적으로 발아하게 될 미래에 대한 혐오와 수치의 방어적 기제가 작동하여 자기혐오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김백수는 ‘요양소로 가는 길’의 시작 지점에서 결인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타자가 아닌 자신의 내부로 끌고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인식과는 별개로 결인이 김백수를 인식하는 것 또한 타자로서의 한센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결인 입장에서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지식인(학생)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대화하고 요양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끊임없이 언어로 표명한다. 이 또한 결인에게 내재한 타자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밥을 좀 자셔야 될건데 어쩔까” …… “금방 얻어왔지! 자네 잠잔 틈에 이 아래 내려가서……그런데 이 아래가 ‘장’이 서는데여” …… 거지는 맞나게 먹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기에 퍽 힘듭니다. …… “학생씨께서는 여 아래 내려가서 무얼 좀 사 자시소. 웃도 나 같이는 안더럽고 상등 여관에도 가겠네!”(낙화유수, 48~50쪽)

“자넨랑 또 주막에가서 사먹게. 그리고 밥 사먹는데서 잠까지 자게나! 나 하고 같이야 잘수 있는가?” …… “잠 자리는 대관절 어떻게 하오?” …… “언덕밑에서는 한테서 어떻게 잔다는 말이오. 이 여름에야 괜찮치만 겨울엔!” …… “자 그만 어서 가게나. 어 어두어지네!”(낙화유수, 54~55쪽)

결인의 발화는 ‘요양소로 가는 길’ 내내 끊임없이 김백수의 의식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김백수는 이 여정의 시작에서 “당신하고 같이 가면 밥 사 먹을 돈이 없대도 괜찮”(낙화유수, 38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한 말인지 스스로 곧 알아차리게 된다. 결인과 함께 걷고, 결인이 얻어오는 밥을 먹고, 한테서 자는 것은 단순한 의식주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을 포기하는 의식주이기 때문이다. 결인은 의식주의 결핍이 김백수와 같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김백수를 자신과 동일시 하지 않고 다른 존재로 판단하고 있다. 인용문

에서 드러나듯 김백수는 걸인이 구걸해온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 것 역시 참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의식주의 적응 문제는 단순히 익숙함과 낯섦의 차이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치심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자기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몸이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백수는 여전히 자신을 한센인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센인이기 때문에 결식하고, 노지에서 잠을 자고, 거적대기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김백수 본인이 선택한 여정임과 동시에 동행 역시 그의 요청으로 걸인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여행의 첫머리에 이러한 의식주 문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과 기대는 생체험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자신이 의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한센인의 유량과 대면하는 현실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주를 둘러싼 김백수의 내적 갈등과 고뇌는 이 여정의 끝까지 그를 괴롭히게 된다. 그것은 의식주가 인간의 본능 영역임과 동시에 인간 정체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요양소 가는 길’에서 한센인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대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낙화유수』에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김백수와 동행하는 걸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얼굴, 손가락 등 걸인의 신체가 한센인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의 물골을 보고 바로 혐오와 거부감을 작동시킨다. 반면에 김백수는 병흔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겉으로 볼 때는 한센인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 참 차를 못 타시겠구려?” 나는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서운 꼴을 새삼스러이 바라 보았습니다. ……흉물스런 그의 얼굴, 손가락이 다빠져 달아나고 추벽같이 된 그의 한편 손— 이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보기가 싫다는이 보담 심히 정 떨어졌습니다. ‘아하— 내가 이 거지와 어떻게 동무할 수가 있나? 같이 잠자리를 할수 있어?’ 아— 내 가슴! 갑자기 터질 것처럼 답답해 집니다.(낙화유수, 39쪽)

“빌어먹는 사람이 해필 이런데를 와서 자. 소곰에 더럽다!” …… 그자는 빈정대는 말씨로 툭 내지르고는 돌아서기에 용납해줄줄 알았더니 다시 도리켜 우리의 모양을 살피다가 얼른 저쯤 물러서 가서는 불덩긴 솔가지 하나를 들고 와서 우리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지의 험상스런 모양과 무서운 얼굴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 “네 요놈의 것들아! 어쩐다고 글세 가매속으로 들어와서 자! 용천병을 하고. 소곰 못팔아먹는다 이놈들아”(낙화유수, 69~70쪽)

“나루터 건네는데 얼마 입니까?” …… “다른 거지들은 다 태워 주워도요, 돈 안받고도 건네줬소만은 안돼요” …… “자동차와 여러 하이칼라 손님들을 날이 날마다 연락부절로 실어 날르는 배—니 데 안돼! 지금 막 실어 줬다가도 다른 손님 뒤에 곧 올줄 알아요? 다 가보기만 하면 이 배에 안탄다고 할터니 어짚테요?”(낙화유수, 72~74쪽)

‘요양소 가는 길’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가야 하는 상황, 길을 걷다가 밤이 되어 어떤 곳에서 자야 하는 상황, 눈앞의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타야 하는 상황 등 일상의 곳곳에서 두 사람의 동행은 제지되었다. 한센인이기 때문에, 한센병을 드러내는 징표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것은 ‘오염’, ‘더러움’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거부이자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김백수는 이런 오염 가능성에서 비켜서 있다. 그도 한센인이지만 아직 그의 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염, 감염, 두려움’은 즉각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허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자화’의 요소가 판별되는 순간 어떤 존재보다 혹독하게 배제된다는 것을 위의 인용문은 보여주고 있다.

김백수는 처음 걸인과 동행할 때 걸인에게 “흉물스러움”이나 “정떨어짐”이라는 감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걸인과 동무로 함께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답답하게 느꼈다. 이는 걸인과 자신을 다르게 구분 짓는 내적 경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반응은 정말 다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일시에 대한 내적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김백수는 걸인에 대한 동일시를 이와 같은 거부 반응으로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펼쳐내고자 하지만 자신 역시 이미 ‘오염된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 오염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

간 자신도 결인과 같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거부되는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겪으면서 서양인이 운영하는 ‘요양소’에 당도하게 된다. 하지만 ‘요양소 가는 길’의 끝에서 그들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존재함을 목격한다. 요양소에 입소한 환자, 요양소에 입소하지 못하고 ‘막입원’의 대상이 된 자, 그조차 희망이 없는 자 등 길 끝에 놓여 있는 참혹한 현실은 김백수와 결인의 희망을 무너지게 했다.

우리는 산 비탈에 엮드린 환자들의 움막을 찾아 들었습니다. …… 막들은 서양원장이 지어주고 입원 못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여기에도 있을려면 ‘막입원’이라는 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입원으로 후일에 병원입원도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낙화유수, 89쪽)

눈을 뜨면 꿈같은 현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바다 물이 보이고, 섬들이 보이고, 해변 한 모퉁이에 엮드려 있는 움막의 참혹한 광경이 보이고, 멀리는 나병원 소재지와 거기에 붉은 지붕들이 송림 속에 들어나 있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나타나는 그곳은 그리운 파라다이스이요, 현실로 나타나는 그것은 저주의 한숨이 터지는 지옥입니다. ‘아아, 나는 이 지옥의 세계를 떠나서 옛날의 낙원으로 다시 돌아 갈수는 없나?’(낙화유수, 95~96쪽)

요양소에 입소를 거부당하고 산비탈 움막으로 간 그들은 그곳에서 지옥을 본다. ‘요양소 가는 길’의 끝에 있어야 할 그들의 보금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요양소행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한센인임을 인정하고 ‘인간’을 떼버리는 대신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정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없었고 “지옥의 세계”가 그들 앞에 있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일제강점기 서양인 선교사들이 주로 운영했던 한센병 요양소, 병원은 일제의 도움 없이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일제의 동아시아 패권장악에 대한 욕망으로 전쟁 준비가 시작된 1930년대가 되면서 요양소 운영과 서양인의 조선 내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또 한센병 환자의 급증 또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 이런 이유

로 한센병 요양소와 병원은 환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한센인들은 다시 유랑하거나 시설 주변에서 집단을 이루어 기약 없이 치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백수는 만원이 된 병원 입원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었다. 움막 머물다가 병원 내부로 몰래 들어가 그곳 환자들의 밥시중을 들면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박춘수라는 인물을 만나 군산의 외국인 선교사에게 도움을 구하자는 의견을 모아 다시금 '요양소 가는 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군산의 선교사 역시 자금 사정과 시설 수용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채 길 위에 던져졌다. 한센병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시작된 유랑의 길은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그 길 위에서 여정을 멈추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김백수는 이 여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잃었다. 얻은 것이라고는 한센인이라는 명확한 자기각성만 남았다.

나는 그만 고향으로 돌아 갈 것을 분명히 결심하고 미포(美浦)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고향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 그러나 '미포'를 거진 다 왔을 때는 걸음이 앞으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 꼴락선은 너무도 망측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동리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더욱 어느 친구의 눈에나 띠을까, 가슴을 조리면서 동리 가차이 와서는 산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 미포! 파라다이스처럼 그림계 바라 보이는 저 아름다운 미포! 나는 솔이 더 드문 곳으로 옮겨가 앉고 미포의 전 파노라마를 그림처럼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낙화유수, 169~171쪽)

김백수는 끝나지 않을 여정을 끝내기 위해 고향 '미포'로 향했다. 미포는 '파라다이스'이다. 그가 유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후 한센병을 진단받고 애써 외면했던 고향을 다시 찾았다. 한센인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 문제"이다. 즉, 김백수의 '의식적 탈향'과 그동안에 있었던 "고향 거부 현상은 고향의 완전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sup>32)</sup>에 따른 반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32) 오현석(2021). 앞의 논문, 229쪽.

나 더 이상 ‘요양소 가는 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마지막 정신적 보루인 고향을 다시금 찾았다. 고향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안식과 평온의 메타포이다. 만약 그가 머물 수 있는 ‘요양소’를 찾았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향을 갈망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현재, 그는 고향을 탐할 수밖에 없었다.

『낙화유수』의 결말은 김백수가 고향 미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고향에서 살던 시절 연인 설애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백수의 실질적인 ‘요양소 가는 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다. 그 여정은 요양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의 길이었다. 그러나 ‘요양소 가는 길’의 궁극적인 목적이 요양소에 당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센병 진단 이후 고향으로 김백수가 바로 돌아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한센병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의문에 답을 찾다 보면 요양소는 그가 몸을 둘 곳이라는 의미보다 한센병을 진단받은 낮은 자기를 찾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당위적 목적이 내포된 상징물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즉, ‘요양소 가는 길’은 안락한, 또는 완치의 희망을 구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님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김백수는 앞으로 걸인과 같이 변해갈 자기 몸과 정신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요양소 가는 길’에 기꺼이 뛰어들었고 그 여정에서 고향 미포를 앞에 두고 현재의 자신을 찾은 것이다. 안타깝지만 고향을 대면하는 순간 자신의 한계와 처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형극의 반생기』는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에 저자가 한센병을 진단받고 일본 내 사설병원, 국립요양소 등에서 투병 생활을 한 재일교포 환우 수기이다. 저자는 『낙화유수』의 주인공과 비슷한 1937년에 한센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한반도 내의 한센인과 일본에서 한센병 환자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형극의 반생기』의 저자 川野順은 일본에 살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선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그의 직장이나 하숙을

하던 곳에서 川野順을 일본인으로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최대한 숨겨서 조선인으로서, 한센인으로서의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일본에서도 한센인은 배제의 대상이었다. 일제가 조선의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강제 수용했듯이 일본 전역에도 <국민우생법>에 근거하여 13개의 국립요양소를 운영<sup>33)</sup>했다. 특히 일제는 일본 본토에서 “우생사상의 파급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생식 자율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단종”<sup>34)</sup>을 합법화하면서까지 한센병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川野順은 조선인이자 한센인이라는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품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느 하나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그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배제의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요양소 생활도 여러 시설에서 생활을 이어간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중의 마이너리티가 드러날 위험을 사전에 막아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감추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즉, 그의 ‘요양소 가는 길’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수단이자 도구였다. 그의 삶의 여정을 한센병 진단 받기 전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차별받던 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학교 근처에 오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서주(徐州~中國) 함락을 축하하는 등불행렬인 것을 알았다.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내지인(內地人)에 한함>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이곳 식민지에서는 무차별 일체(一體)인 것만을 믿게 하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즉 내지(內地)에서 쓰라린 눈물을 머금고 온 나에게는 그 속임수가 한낱 연극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형극의 반생기, 75쪽)

“자네는 조선 사람인가? 일본인이 아니던가?” “네 조선인입니다” “정말로 일본인이 아닌가?” “네 조선인입니다.” 이 때에 나는 생각해 봤다. ‘내 말씨가 일본인 같지 않아서 그것으로 의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하고 “자네는 정말로 일본인이 아니란 말이지.” “네 일본인이 아닙니다.” 이 때에

33) 이지형. 앞의 책, 103쪽.

34) 이지형. 앞의 책, 105~106쪽.

순경의 손바닥이 내 뺨에 날랐다. 두 번, 세 번 눈에서 불꽃이 튀긴다. “이 자식, 끝까지 조선인이라고 버틸 썬인가, 일본인이 아니란 말이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 조선도 일본이야!” …… ‘부조리(不條理)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강도처럼 돈을 뜯어내고, 트집을 잡아 무리하게 예속(隸屬)시키는 지독한 수법에 참아야만 했다. ‘역행(逆行)하는 것은 죽음에 통(通)한다’ 나는 답답한 기분이었다.(형극의 반생기, 86~87쪽)

川野順은 일본에서 여러 직업과 여러 도시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조선인으로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회피 의식이 형성되었다. 1930년대 당시 일본 도시 거리 곳곳에 붙은 구인(求人) 간판에 “내지인(內地人)”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조선인인 그가 ‘내지(內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일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오롯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생활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았다. 아니면 내지인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에 열악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했다. 즉, 조선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일본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속이거나 조선인임을 언급하지 않고 스스로 침잠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일본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자전거를 타다가 거리에서 아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본 순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川野順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실토하는 상황이 생겼다. 순사는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를 물었다. 川野順은 자신의 말씨가 일본인과 달라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인’이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순사의 의도와 川野順의 이해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사는 ‘조선은 없으며 모두 일본’이라고 하며 그의 뺨을 때렸다. 순사의 행위와 언어에 대해 그는 “부조리, 강도, 예속”이라는 단어로 문제적 상황임을 인식했지만 이러한 차별에 “역행하는 것은 죽음”의 위험임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川野順의 상황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정체

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사카에서부터 있었던 몸의 이상 징후가 동경에서도 계속되자 川野順은 숙부와 함께 후쿠오카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후 한센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이때 '인간'을 내려놓아야 하는 처절한 경험을 한다. 진단 직후 의사와 제자들은 발가벗겨진 그의 몸에서 병흔이나 한센병의 특성을 찾으려고 했다. 한센병이 확인된 그의 몸은 의학적 지식을 쌓으려는 의사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앞머리가 벗겨지고 아주 권위있게 보이는 교수 같은 남자를 중심으로 열 명쯤의 남자들이 학생복에 흰 까운을 입고 서 있었다. 그리고 아까 진찰을 하던 의사도 있었다. 아주 익숙한 간호원에 의하여 내가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은 벗겨지고 얇은 발판에 올라섰다. 모든 사람의 눈이 나에게 집중된다.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의 소재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권위 있어 보이는 남자가 얇은 소리로 무엇인가 이야기 할 때 모두의 얼굴과 눈에는 호기(好氣)의 빛이 가득했다.(형극의 반생기, 70쪽)

그는 이미 의사로부터 한센병을 진단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금 불려들어가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몸을 모두 내어놓아야 했다. 간호원의 “아주 익숙한” 지시에 따라 나체가 되었다. 이미 그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학생들에게 ‘인간’이 아니었다. 단지 한센병을 지니고 있는 샘플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일본에서도 한센인은 한센병을 진단받음과 동시에 ‘인간’을 박탈당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벗겨벗은 자기 몸을 오롯이 타자의 시선에 내어주어야 하는 동물원에 전시된 동물과 같이 그는 어디에도 자신을 숨길 곳이 없었다. 이처럼 한센인의 타자화와 인격 제거는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 가는 길’의 여정은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형극의 반생기』는 『낙화유수』의 여정과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요양소 가는 길’에서 처절한 고통과 ‘인간’ 포기를 통해 자신의 변화된 몸을 객관화해가는 『낙화유수』와는 달리 『형극의 반생기』는 고난보다는 숨겨둔 병과 숨겨둔 민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본격적인 ‘요

양소' 여정을 지연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여정으로 고향행을 택했다. 그는 4~5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조선은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요양소로 들어가게 되면 출입과 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한번 찾아갈 것을 결정했다. 다른 한센인들과는 달리 고향행을 택했던 것은 川野順의 병의 흔적이 다리에 수포 말고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견상으로는 전혀 한센인임을 알아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고향을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도 한센인의 자기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나는 요양소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사회도 친형제도 언젠가는 영원한 작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머니와 형제들과는 한번쯤 만나두자. 병이 진행되어서 얼굴이나 수족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만나고 싶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같아서는 외견상 아무런 이상은 없다. 나는 갑자기 무조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졌다.(형극의 반생기, 73쪽)

‘요양소로 가는 길’은 누가 한센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었다. 조선과 상황이 달랐던 점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형극의 반생기』에서 저자는 후쿠오카, 오사카, 동경 등 일본 대도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의 비밀이나 사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한정된 거주지(고향 등)에서 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병의 진단과 진행을 숨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센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 즉시 탈향(脫鄕)의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이든, 일본이든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들의 의식 속에 깊게 박혀 있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존재였다.

川野順은 자신의 요양소 행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인간 대열 속에 살 수 없는 동물”인 자신이 “인간을 겁내어 안주(安住)의 땅을 찾아 도망가는 것<sup>35)</sup>”이 한센병을 지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스스로 타자화한다. 그의 의식 세계는 한센병을 중심에 두고 '동물-인간, 살 수 없는 곳-안주의 땅'으로 이분화되어있다. 더 이상 합치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내부와 외부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川野順은 고향 방문을 마치고 '요양소로 가는 길'에 오른다. 그의 요양소 행은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 갱생원이라는 하나의 시설에 집중적으로 강제 수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선택이 가능했다. 그는 처음에는 후쿠오카에 위치한 사립 신정심경원(私立身廷深敬園) 분원<sup>36)</sup>에 입원해서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구주(九州)의 국립 국지혜풍원(菊池惠楓園)<sup>37)</sup>으로 전원했다. 그리고 요양소에서 가정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가고시마에 위치한 국립 성봉경애원(星塚敬愛園)<sup>38)</sup>에 정착했다. 일본에는 현재 13개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sup>39)</sup>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입소한 한센인들은 과거 격리, 단종, 사망 후 해부 등 수많은 인권 유린을 경험했다. 1907년 <나예방에 관한 건>이라는 법안이 제정 후 1931년 <나예방법>, 1948년 <우생보호법>, 1952년 <<신>나예방법> 등 한센인에 대한 억압은 시간이 갈수록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다.<sup>40)</sup>

35) 川野順. 앞의 책, 98쪽.

36) 사회복지법인 심경원(야마나시현 미나미겨마군 미노부초 미노부 3637). 1906년(메이지 39년)에 입소자 13명으로 사립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후 현재는 장애인 요양 및 치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1930년(쇼와 5년)에 일본 규슈에 분원을 설치했다가 1942년(쇼와 17년)에 폐쇄했다. 川野順은 1939년~1940년까지 규슈 분원에 입원했다. <https://jinkyoen.jp/?1676255141> (검색일: 2023.2.13)

37) 국립 요양소 기쿠치 에카이엔(구마모토현 고우시시 사카에 3796). 이곳은 1909년(메이지 42년) 수용 정원 150명 규모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9년(제이와 원년) 개원 110주년을 맞이했으며 179명의 한센인이 생활하고 있다.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fuen/](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fuen/) (검색일: 2023.2.13)

38) 국립 요양소 호시즈카 경애원(가고시마현 가야시 호시즈카초 4204번지). 이곳은 1932년(쇼와 7년)에 수용 정원 300명 규모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aien/index.html](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aien/index.html) (검색일: 2023.2.13)

39) 13곳의 구체적인 한센병 요양소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mhlw.go.jp/general/saiyo/hansen-doctor/> (검색일: 2023.2.13)

40) 김재형·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

川野順도 이러한 일본의 한센병 요양소 상황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의 전쟁 야욕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본토도 전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소의 사정 역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처음에는 사립병원을 택했다.

그 만류하시는 말씀은 고맙지만 실제에 있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사립병원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기왕에 나올 가망이 없는 병이라면 언제까지나 사립병원에서 고생하느니 보다 모든 것을 단념하고 국립 요양소로 입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형극의 반세기, 113쪽)

역에 도착하여 우선 구마모도(熊本)까지의 차표를 사고 짐보따리도 맡겼다. 아직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변화한 상점가로 향했다. 요양소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이 외출하는 데 자유가 없으리라, 자유가 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많이 봐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형극의 반세기, 111쪽)

사립병원은 개인의 입퇴원이 자유롭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가 처음 입원했던 심경원 분원은 츠나와키 류모가 당시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일본 중부 나마나시현에서 개원한 일본 최초의 민간 한센병 병원이자 요양소로 일본 남쪽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규슈에 분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川野順은 일본에서 일하며 모았던 생활비로 병원비를 냈지만 점차 곤란을 겪게 된다. 병원에 입원 후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아둔 돈을 다 쓰면 병원에 머물 수 없다는 걱정때문에 구마모도의 국립 요양소로 가게 된다. 그런데 사실 그가 전원(傳院)을 선택한 궁극적인 원인은 “나을 가망이 없는 병”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모든 것을 단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하고 그는 국립 요양소로 거처를 옮겼다. 국지혜풍원 입소 전 그는 구마모도 시내에서 잠깐이 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한다. 병원에서 주어졌던 자유가 요양소로 들어가는 즉시 통제되기 때문이었다.

국립 요양소에 입소하면서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19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전쟁에 몰두한 결과 한센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멀어져서 요양소 한센인의 삶은 매우 비참해졌다. 川野順 역시 이 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 노역 등의 일을 해서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자신 모두 실명을 하고 손과 발에 한센병이 깊어졌다. 그가 심경원을 나오면서 나올 수 없는 병에 모든 것을 단념한 결과가 현실이 되었다. '요양소 가는 길'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주하기 두려웠던 변해버린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나 같은 처지는 돈을 위해서 이런 것에 나왔지요. 그러기 때문에 버는 것이 제일이지요. 그러나 나 자신 어쩔 수 없을 때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안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또 내 반역정신의 발로지요. 우리들은 제각기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지요. …… 너무 심각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모두를 경멸해 주는 거예요. …… 태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도 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지요. 나 같은 처지를 이 세상에서 본다면 인간의 쓰레기지요. 그러나 나 자신은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형극의 반생기, 89쪽)

위의 인용문은 川野順이 자전거 사고 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흥등을 찾았을 때 만났던 여자의 자기 고백이다. 그녀는 모두가 경멸하는 몸 파는 일을 하지만 그 '돈'을 위한 행위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놓여 있었다. 물론 몸 파는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신분이나 국적 역시 한 사람의 선택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타자의 경멸 행위나 비난은 반대로 타자화시킨 그들이 “경멸” 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된다. 그녀는 사회의 배타적 시선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참을 수 없을 때 '돈'을 포기하는 '반역'을 감행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위안 삼았다.

川野順은 일본 생활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일본에서의 삶의 여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감출 수 없어서 별거벗겨진 자신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더해 한센인으로서의 삶은 이중적 마이너리티지만 조선인과 한센인이라는 두 가지 굴레는 ‘변할 수 없’다. 여인이 말한 바와 같이 우연으로 조선인, 한센인이 되었다. 누구의 의도나 강제가 아니었다. 여인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각자 자신을 둘러싼 굴레의 압박을 이겨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는 비밀을 나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적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 거기에 한센씨병,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내 행동을 제약하며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다.(형극의 반생기, 96쪽)

이곳에 입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알게된 사실이지만 소내에는 수십 명의 동포(同抱)가 있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인가는 국적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과거에 있어서는 국적을 숨긴 일이 있었다. 그것은 취직이라는 관문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요양소 안에서 국적을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차별과 편견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창한 일본어를 말하며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모욕의 대명사인 ‘조센징’이라는 말을 귀로 듣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형극의 반생기, 115쪽)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신념이라는 것은 허무함, 불확실을 그들은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까. 신국일본(神國日本)이라든가 야마토타마시(大和魂)라는 마약적인 단어의 이면의, 이면을 알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주입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터로 향하던 일들을.(형극의 반생기, 119쪽)

川野順은 자신의 말대로 “반쯤 일본인이 되”어 살아왔다. “시대에 순응하고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고, 하라는 대로 인형과도 같”<sup>41)</sup>이 살아오면서 ‘요양소로 가는 길’에 들어섰고 요양소에 정착했다. ‘조선인과 한센병’이라는 요소는 표면화되면 언제라도 일본에서 자신의 삶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였다.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양소 가는 길’은 자신의 ‘인간’을 잃는 대신에 또다른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양소 행이 바로 한센인임을 공

41) 川野順. 앞의 책, 119쪽.

표하는 행위이므로 그 굴레에서 해방됨으로써 川野順은 본질적인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또 『형극의 반생기』라는 책의 출간은 그의 해방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요양소에서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 역시 자신과 같은 굴레의 낙인을 두려워하여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국적, 조국, 신념’이라는 인간 저변에 깔려 있는 조건에 대해 고민했다.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인간의 역사가 그들이 지닌 어떤 신념에 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되묻고 있다. ‘타인을 차별, 배제, 억압하는 의식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화혼(야마또다마시)을 흔히 일본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라고 한다. 나의 고유한 정신이 아닌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나라는 존재를 규정함에 있어서 내가 오롯이 민족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가? 유흥가에서 그가 만난 여인도 똑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내가 민족이 될수는 있지만 민족이 나의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생길 수 있다. 川野順은 ‘요양소 가는 길’을 통해 결국 자신이 두려웠던 자아를 대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세계의 편견과 배제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궁극적 깨달음이 『형극의 반생기』를 집필하는 행위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장편소설 『낙화유수』와 재일동포 환우수기 『형극의 반생기』에서 각 저자가 한센병을 진단받고 요양소로 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요양소 가는 길’은 단순히 한센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요양소에 당도하는 이주 또는 이동의 의미가 아니다. ‘요양소 가는 길’ 그 자체가 한센인의 심적 고뇌를 반영한 것이며, 한센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한센인들이 병을 확진 받은 후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떠나 요양소로 갔

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록도 갱생원이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한센인들의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 그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1930년대 일제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근거로 법을 제정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한센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요양소에서 강제 격리, 단종, 시체 해부 등 극악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요양소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길 말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가해질 폭력이 방향을 틀어 가족, 지인,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폭력보다 더 두려운 과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양소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낙화유수』의 ‘요양소 가는 길’ 서사의 특징은 주인공 김백수가 그 길 위에서 만났던 존재들을 통해 자신 인식을 확립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가 길에서 만난 존재들은 어김없이 사회로부터 배제와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타자화된 존재로 버려졌다. 김백수는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를 향하며 걸인 동료와 함께 길을 갔으며, 그 과정에서 한센병 때문에 홀로 요양소로 향하는 여자도 동행하게 되었다. 또 요양소에 당도해서는 입원하지 못하고 박춘수라는 사람과 군산행을 택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요양소 가는 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김백수는 소설 마지막에 고향 언덕으로 돌아와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관조하면서 이야기를 맺는다. 이 소설을 통해 김백수의 ‘요양소 가는 길’은 요양소에 입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센병에 걸린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여정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김백수 자신의 심리적 상관물이다. 그들을 보면서 김백수는 자신과 그들을 구분했지만 여정이 전개될수록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자신이 바로 한센인이기 때문이다. 김백수의 기나긴 여정은 비록 요양소라는 목적지는 찾지 못했지만 현재의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형극의 반생기』는 1930년대 일본 본토의 한센병에 대한 여러 상황

을 잘 보여준다. 저자인 川野順은 재일조선인으로 한센병을 진단받은 인물이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인이라는 마이너리티와 함께 한센병이라는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지닌 존재가 살아가는 것은 표면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핏박과 차별의 꼬리표가 달라붙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숨겨두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센병 진단과 함께 알몸으로 의사와 의학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했으며, 자전거 사고로 순사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혼담이 오고 갈 때에도 조선인 또는 한센병이라는 숨겨둔 속성이 그의 정체성을 일깨웠다. 이렇듯 川野順의 일본 생활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거부, 은닉과 공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그는 한센병 진단과 동시에 ‘요양소 가는 길’을 염두에 두고 생활했다. 즉, 진단받은 순간부터 그의 요양소 여정은 시작된 것이다. 병흔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일신을 정리하고 사립병원을 거쳐 국립 요양소에 입소하여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눈을 잃었고, 손과 발의 기능도 점차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시대에 순응한 삶으로 평가했다.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지닌 존재로서 그가 지나온 ‘요양소 가는 길’은 그러한 제약을 벗어나서 자신을 찾는 길이었다. 비록 눈과 손의 기능은 잃었지만 자신이 두려워했던 자기 정체성의 대면에는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한센병에 걸려 ‘요양소 가는 길’의 여정을 이어간 한센인들이 남긴 소설과 수기를 통해 그들의 내면 의식을 추적해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요양소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나 희망의 길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용기를 얻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한센인들에게 100여년 전 가해졌던 편견과 차별, 배제, 타자화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존재도 ‘요양소 가는 길’에 나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재형·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289~331쪽.
-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돌베개.
- 김재형(2021).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최해별 외 8인, 질병 관리의 사회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무명생(1953). 낙화유수, 정음사.
- 소록도병원(1996). 연도별 환자추이, 소록도 80년사, 소록도병원.
-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 연구〉 79, 101~134쪽.
- 오현석(2021). 한센인 잡지 『복지』를 통해 본 한센인의 고향상실: 탈향, 귀향, 실향의 서사, 〈한국민족문화〉 80, 207~237쪽.
- 이지형(2019). 과잉과 결핍의 신체, 보고서.
- 정근식(2002).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 5~41쪽.
- 정근식(2004).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심승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연구〉 23, 325~353쪽.
- 川野順(1975). 신정하 옮김,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 한순미(2012). 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승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 〈인문과학연구〉 34, 471~498쪽.
- 한하운(2010). (재)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한하운 전집, 문학과 지성사.
- 김우철(1934.6.13). 문예시평 7 작가의 체험과 진실,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 사천여 나환자 증 영남이 과반수, 동아일보, 1926.1.25.
- 마사 너스바움(2015).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168쪽.
- 에드워드 렐프(2017).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국립 요양소 혜풍원.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fuen](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fuen)
- 국립 요양소 경애원.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aien/index.html](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ansen/keiaien/index.html)
- 사회복지법인 심경원. <https://jinkyoen.jp/?167625514>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

GC95201393&localCode=jpn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27197>

## 필자 소개

성 명 오현석

소 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자우편 ohssek@hanmail.net

## | Abstract

# A Study on Hansen's “The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Oh, hyoun-su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alt with the identity problems and otherization problems that Hansen's people face in the process of visiting the leprosy sanatorium. The “road to leprosy sanatorium” was functioned to recognize and grasp themselves objectively. The full-length novel “NAKHWAYUSU” describes many moments of pain that the main character Kim Baek-soo experienced on his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of 川野順's work describes the process of the author going to the leprosy sanatorium after being diagnosed with Hansen's disease in Japan. And they are accept their existence, which has changed from before, on the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Key words]** Hansen's people, Hansen's disease, Hansen's disease Literature, Leprosy Sanatorium,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투고일 2023. 02. 26 / 심사일 2023. 03. 13 / 심사완료일 2023. 03. 13